06호

Kstat Report

2020년 5월 28일

흡연과 건강 관련 국민의식 분석

흡연 관련 국민의식

- 평소 흡연, '전혀 하지 않는다' 68%
- 전 연령대에 걸쳐 남자의 흡연 비중 절대적으로 높아
- 흡연 방법, '궐련형 담배' 압도적으로 높아
- 전자담배 이용층, 여자 20대와 여자 30대에서 많아
- 금연정책,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 정책 실효성 높게 평가
- 성/연령별 금연정책 실효성 평가 다르게 나타나

건강 관련 국민의식

- 평소 건강 관심도, '많다'는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
- 국민 다수, 평소 자신이 '건강하다'고 생각
- 기대 수명, 80대가 40%로 가장 높아
- 국민들,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비해 건강 위한 노력 부족한 편
- 건강을 위한 노력, 5060 여자 계층이 가장 적극적

건강과 빈부 격차

- 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돈, 소득별 편차 존재
-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 관련 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'있다' 40%

Kstat 케이스탯

trendresearch 온라인 서베이

일러두기

-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, 세부항목의 합이 100%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중복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%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.
-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.
-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.

흡연 관련 국민의식

평소 흡연, '전혀 하지 않는다' 68%

- WHO가 지정한 '세계 금연의 날'(5월 31일)을 맞아 흡연 여부를 질문한 결과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흡연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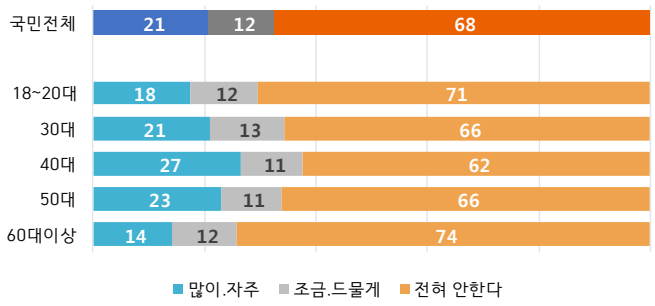
- "선생님께서는 평소 흡연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?" 라는 질문에 국민 중 68%는 '전혀 하지 않는다'고 응답함
  - '많이, 항상'과 '적당히, 자주' 응답을 합한 일상적 흡연자 비중은 21%이고, '조금, 가끔'과 '아주 드물게'를 합한 불규칙 흡연자 비중은 12%로 조사됨

- 흡연 여부는 성별에 따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
  - 여자 계층의 경우 일상적 흡연자가 7%에 그치는데 비해 남자 계층은 34%로 매우 높아, 흡연이 주로 남자 계층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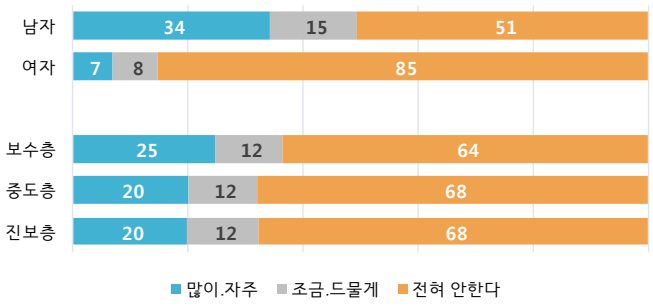
- '전혀 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특히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60대 이상 △여자 △TK △주부 계층임
  - 주부 계층은 '전혀 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88%로 가장 높음

-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40대 △남자 △보수층 △PK △자영업자, 블루칼라 계층으로 나타남
  -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41%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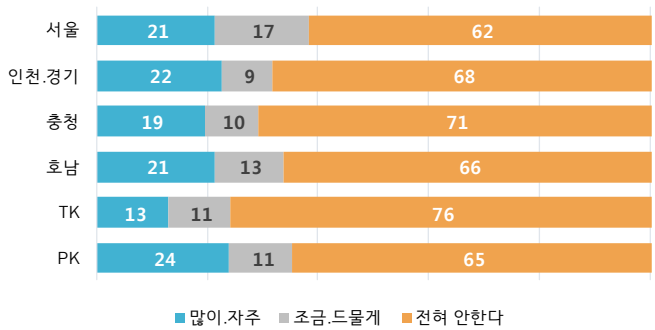
평소 흡연 정도 : 국민전체,연령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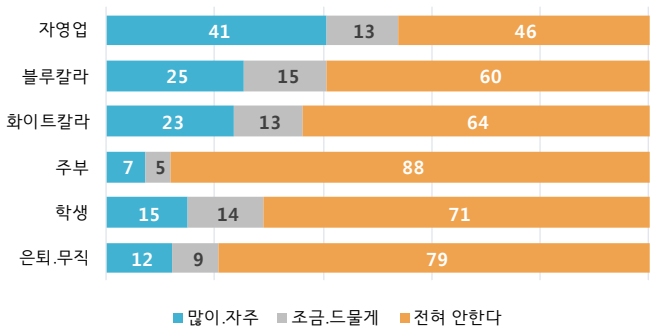
평소 흡연 정도 : 성별,이념성향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평소 흡연 정도 : 지역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평소 흡연 정도 : 직업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✠ 전 연령대에 걸쳐 남자의 흡연 비중 절대적으로 높아

▸ 흡연 현황을 성/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남자의 흡연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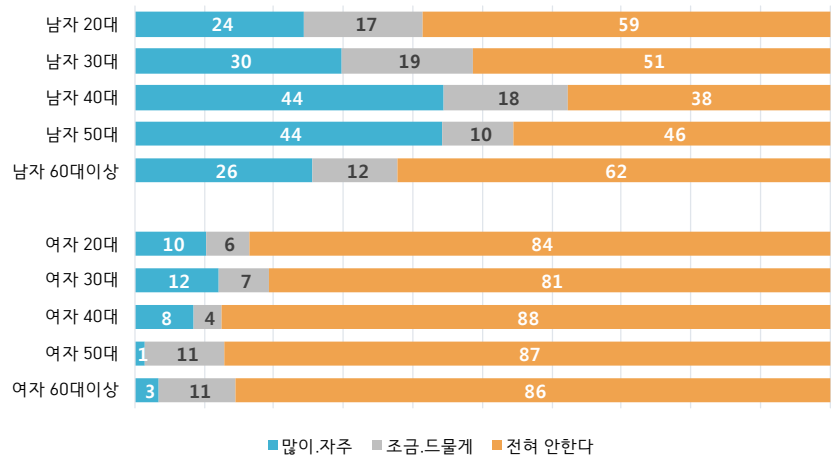
▸ 특히 4050 남자 계층의 흡연 비중은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공히 44%로 높게 나타났고, 불규칙 흡연자 비중까지 합하면 각각 62%, 54%로 절반을 넘음

- 우리나라 주요 흡연자 계층은 이들 4050 남자로 조사됨
- 남자 계층에서 가장 흡연 비중이 낮은 계층은 남자 60대 이상으로 '전혀 하지 않는다'는 응답이 62%이고, 다음으로 18~20대(59%) 순으로 나타남

▸ 여자의 경우 2040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높고, 5060 연령대의 일상적 흡연자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

- 여자 30대의 일상적 흡연자 비중이 12%로 상대적으로 높고, 다음으로 여자 20대(10%)임

평소 흡연 정도 : 성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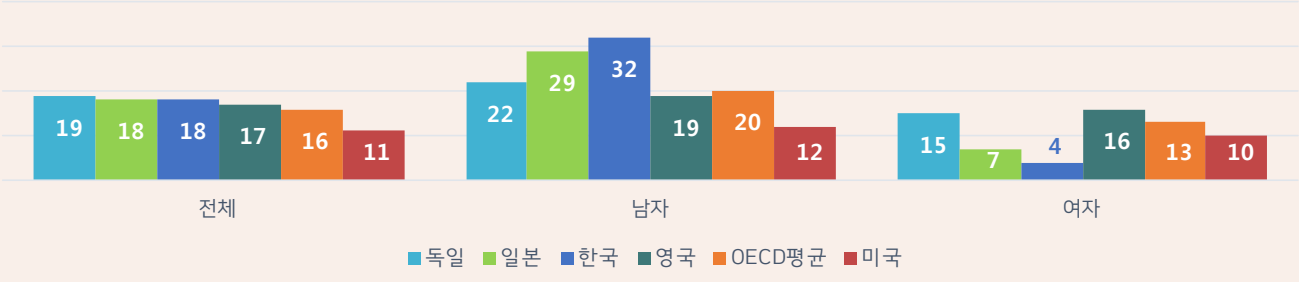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☑ OECD 보건통계 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 흡연율(매일 흡연자)은 OECD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임

☑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의 흡연율은 OECD 평균보다 11%p 높고, 여자의 흡연율은 -9%p 낮아 남녀 간 편차가 큼

: 이는 상대적으로 OECD 국가들이 남녀 간 편차가 거의 없기 때문으로, 우리나라(일본 포함)의 보수적 사회풍토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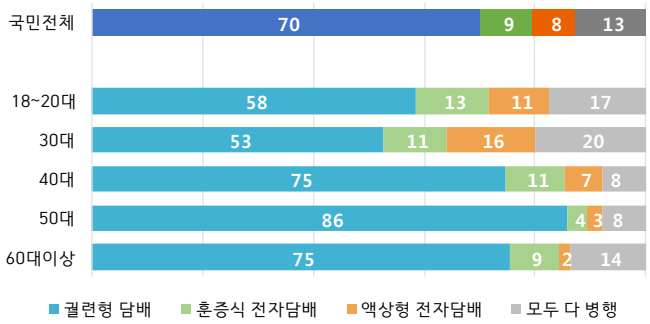
OECD 흡연율 (매일 흡연자,자료:OECD보건통계 2019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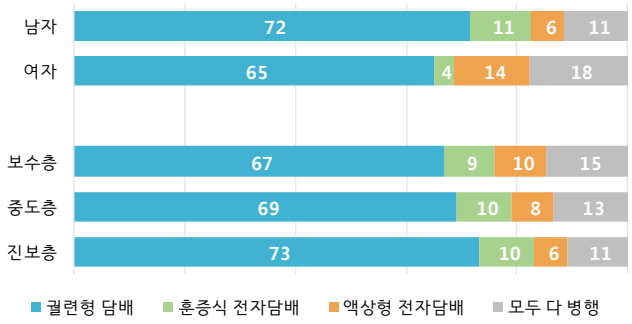
✠ 흡연 방법, '궐련형 담배' 압도적으로 높아

- ▸ 흡연자들만을 대상으로(앞서 일상적 흡연자와 불규칙 흡연자) 흡연 방법을 질문한 결과 70%가 '궐련형 담배'를 이용한다고 응답함
  - '훈증식 전자담배' 9%, '액상형 전자담배' 8%, '모두 다 병행' 13%로 조사됨
- ▸ 4060 연령층은 궐련형 담배 이용 비중이 높은데 비해 2030 연령층은 상대적으로 전자담배(훈증식 + 액상형) 이용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임
  - 18~20대의 전자담배 이용은 24%이고, 30대는 27%로 상대적으로 높음
- ▸ 성별로도 남자의 경우 궐련형 담배 이용이 높고, 여자는 전자담배(훈증식 + 액상형)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- ▸ 지역별로는 TK지역은 궐련형 담배 이용 비중이 높은데 비해 서울, 인천.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전자담배(훈증식 + 액상형)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- ▸ 직업별로 살펴보면 궐련형 담배 이용 비중이 높은 직업은 자영업자와 은퇴.무직자이고, 학생 계층은 전자담배(훈증식 + 액상형)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
  - 학생 계층은 궐련형 담배 이용이 48%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, 전자담배 이용 비중은 30%로 매우 높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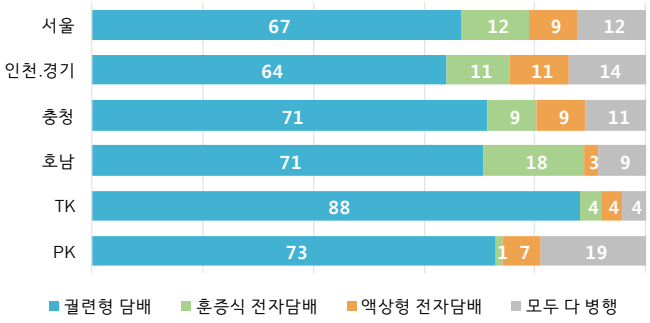
흡연 방법(흡연자만) : 국민전체,연령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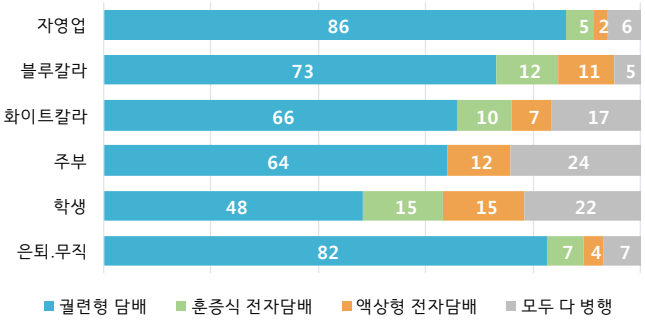
흡연 방법(흡연자만) : 성별,이념성향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흡연 방법(흡연자만) : 지역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흡연 방법(흡연자만) : 직업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몇년 전부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(훈증식 + 액상형)는 주로 젊은 층과 여자, 수도권, 학생 계층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☑ 한편, '모두 다 병행' 한다는 의견이 13%로, 흡연 방법의 중첩화 경향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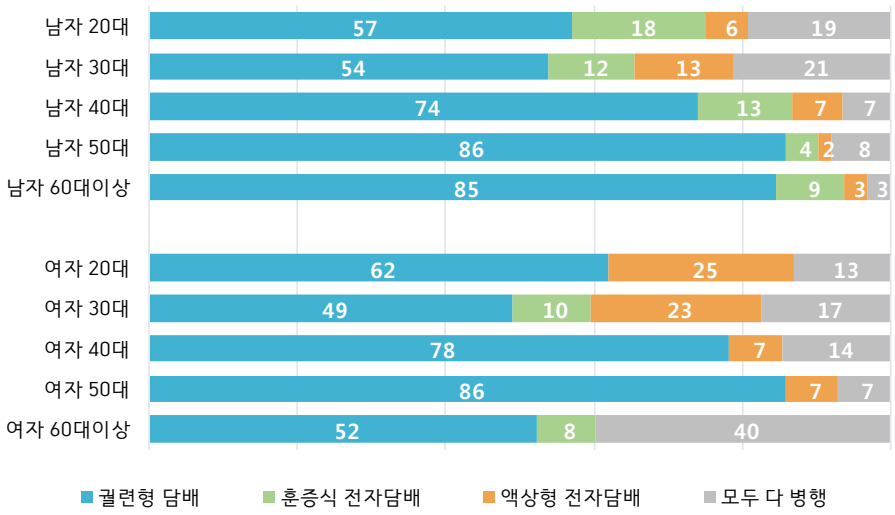
✠ 전자담배 이용층, 여자 20대와 여자 30대에서 많아

▸ 흡연 방법을 성/연령별로 살펴보면 젊은 층 중에서도 특히 여자 계층에서 전자담배(훈증식 + 액상형) 이용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

▸ 2030 여자 계층은 전자담배 중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여자 20대의 액상형 전자담배 이용 비중은 25%이고, 여자 30대는 23%임

흡연 방법(흡연자만) : 성/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냄새가 거의 없고, 편리성과 다양한 맛 등으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☑ 미국에서도 2015년 '쥴(Juul)이 판매되면서 젊은 층 중심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, 향후 액상형 전자담배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

☑ 다만,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(중증 폐질환)이 제기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추진되고 있으며,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수요증가 흐름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

: 우리나라에서는 전자담배의 대표격인 쥴(Juul)의 편의점 판매가 중단된 상태임

: 문제가 된 '쥴' 외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시중에서 계속 판매되고 있지만 전자담배 유행성 논란의 영향력 아래 있어 수요 증가 흐름이 정체되고 있다는 평가임

✠ 금연정책,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 정책 실효성 높게 평가

▸ 정부 중심의 각종 금연 정책에 대해 국민들은 다소 인색한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

▸ "우리나라는 정부와 사회 차원에서 각종 금연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각각의 금연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" 라는 질문에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에 대해서만 '효과있다'(63%)는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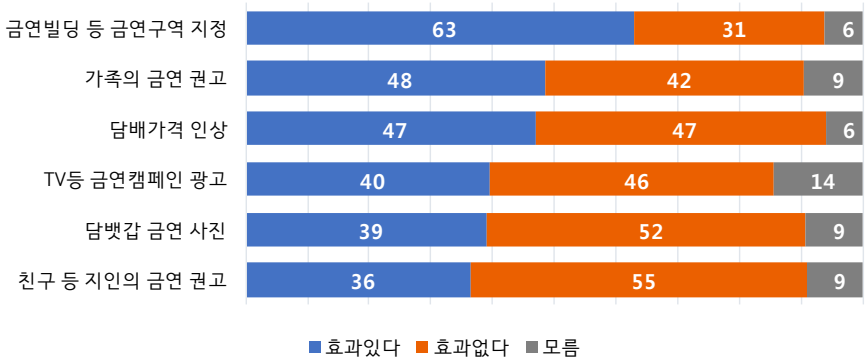
▸ '담배가격 인상'은 '효과있다'는 의견과 '효과없다'는 의견이 팽팽하고, 'TV등 금연캠페인 광고'와 '담뱃갑 금연 사진'은 '효과없다'는 의견이 우세함

- '담배가격 인상'에 대해 '효과있다'는 의견과 '효과없다'는 의견은 공히 47%로 조사됨
- 'TV 등 금연캠페인 광고'에 대해서는 '효과있다'는 의견이 40%인데 비해 '효과없다'는 의견이 46%로 더 높게 나타남
- '담뱃갑 금연 사진'에 대해서는 더욱 비판적인데, '효과있다'는 의견은 39%이고, '효과없다'는 의견은 52%로 조사됨

▸ 한편, '가족의 금연 권고'는 '효과있다'는 의견이 우세하고(48%), '친구 등 지인의 금연 권고'는 '효과없다'는 의견이 우세한(55%) 것으로 나타남

- 국민들은 정부의 금연정책 보다 '가족의 금연권고'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

금연정책 효과 평가 : 국민전체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국민 건강보호 차원에서 정부는 각종 금연 정책을 수립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음

☑ 이러한 금연 정책 및 홍보로 인해 우리나라 흡연 인구는 꾸준히 줄어드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
: 우리나라 성인 남녀의 흡연율은 2009년 27%에서 2018년 현재 22%로 줄어듦(자료:보건복지부)

☑ 그러나 현 시점에서 국민들은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 외의 정책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비판적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
: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액상형 전자담배가 인기를 얻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그간의 금연정책 및 홍보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임
: 성/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정책실효성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, 'TV등 금연 캠페인 광고'와 '담뱃갑 금연 사진'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일부 성/연령대에서만 '효과있다'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실효성이 낮음(다음 장 참조)

☑ 흡연에 따른 건강상의 문제를 강조하는 데서 금연 시 얻게 되는 일상의 변화(특히 가족관계 개선)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

※ 성/연령별 금연정책 실효성 평가 다르게 나타나

▸ 성/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자 20대와 여자 20대가 금연정책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

- 20대 남녀 모두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 외에는 '효과없다'는 의견이 우세하고,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이 '효과있다'는 긍정여론 편차도 다른 성/연령대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남

※ 긍정여론 편차는 '효과있다'는 여론 비중에서 '효과없다'는 여론 비중을 뺀 수치임

▸ 20대 남자를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의 남자는 모두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과 '가족의 금연 권고'에 대해 '효과있다'는 의견이 우세함

- 특히 남자 4060세대의 경우 긍정여론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
- 그외 정책에 대해서는 남자 30대가 '담배가격 인상'에 긍정여론 편차가 소폭 있고, 남자 60대 이상은 'TV등 금연 캠페인 광고'와 '친구 등 지인의 금연 권고'에서 긍정여론 편차가 존재함

▸ 여자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'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'에 대해서는 긍정여론 편차가 크지만, '가족의 금연 권고'에 대해서는 5060 연령층만 긍정여론 편차가 있음

- 이는 3040 여자의 경우 보수적 사회분위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흡연을 숨기고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
- '담배가격 인상'에 대해서는 여자 30대. 여자 40대. 여자 60대 이상에서 긍정여론 편차가 있고, 'TV등 금연 캠페인 광고'에 대해서는 여자 5060 연령층에서 긍정여론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
▸ '담뱃값 금연 사진'의 경우 긍정여론 편차가 있는 성/연령이 여자 50대 밖에 없어 정책 실효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임

- 'TV등 금연 캠페인 광고' 역시 긍정여론 편차는 남자 60대 이상, 여자 5060 연령층에 한정돼 있음

남자 연령별 금연정책 긍정여론 편차('효과있다' - '효과없다')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.조사,단위:%p)

	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	가족의 금연 권고	담배가격 인상	TV등 금연 캠페인 광고	담뱃갑 금연 사진	친구 등 지인 금연 권고
남자 18~20대	5					
남자 30대	18	3	5			
남자 40대	25	24				
남자 50대	44	34				
남자 60대 이상	66	49		16		10

여자 연령별 금연정책 긍정여론 편차('효과있다' - '효과없다')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.조사,단위:%p)

	금연빌딩 등 금연구역 지정	가족의 금연 권고	담배가격 인상	TV등 금연 캠페인 광고	담뱃갑 금연 사진	친구 등 지인 금연 권고
여자 18~20대	12					
여자 30대	23		16			
여자 40대	44		9			
여자 50대	48	1		17	5	
여자 60대 이상	40	14	1	21		

건강 관련 국민의식

평소 건강 관심도, '많다'는 의견 압도적으로 높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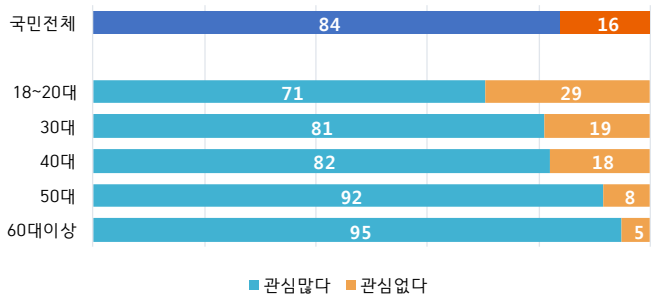
▸ 우리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

- "선생님은 평소 건강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?" 라는 질문에 '관심이 많다'는 의견이 84%로 압도적으로 높고, '관심이 없다'는 의견은 16%에 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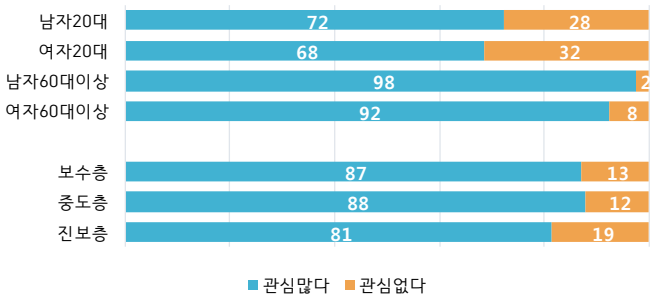
▸ 건강에 대해 '관심이 많다'는 의견은 모든 계층에서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됨

- 60대 이상 연령층의 '관심이 많다'는 의견은 95%에 달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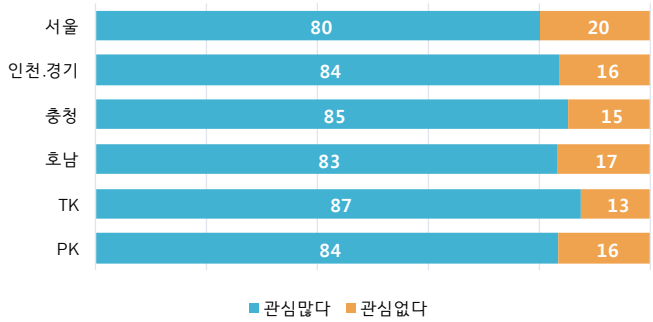
건강 관심도 : 국민전체,연령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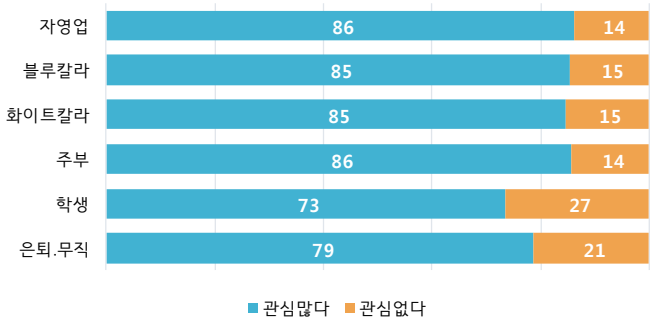
건강 관심도 : 20대.60대남녀별,이념성향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건강 관심도 : 지역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건강 관심도 : 직업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양적 관심도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, 질적으로도 건강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삶에서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음

☑ 지난 케이스탯 리포트 2호 『'행복' 관련 국민의식 심층 분석』(2020년 3월 26일자) 내용을 보면 국민들은 '행복' 연상 단어로 '가족.가정', '여유.여행', 그리고 '건강'을 가장 많이 꼽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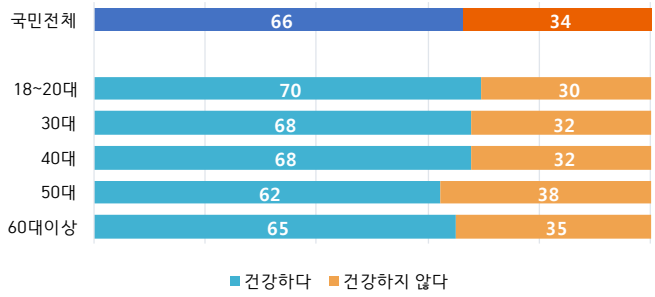
☑ 또한 '불행' 연상 단어로는 '건강문제.질병', '빈곤.경제적 어려움', '슬픔.외로움'을 꼽는 등 건강을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있음

✠ 국민 다수, 평소 자신이 '건강하다'고 생각

- 우리 국민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'건강하다'고 생각하는 국민이 66%이고, '건강하지 않다'고 생각하는 국민은 34%인 것으로 조사됨
- 평소 '건강하다'는 응답은 모든 계층에 걸쳐 높게 나타났으며,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
- '건강하다'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△20대 △호남 △학생 계층이고, '건강하지 않다'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계층은 △50대 △충청권 △주부, 은퇴.무직자 등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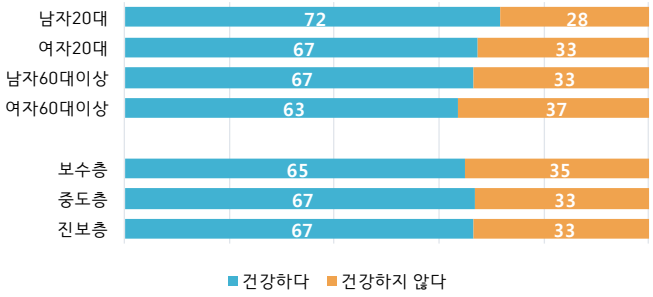
자신의 건강상태 평가 : 국민전체,연령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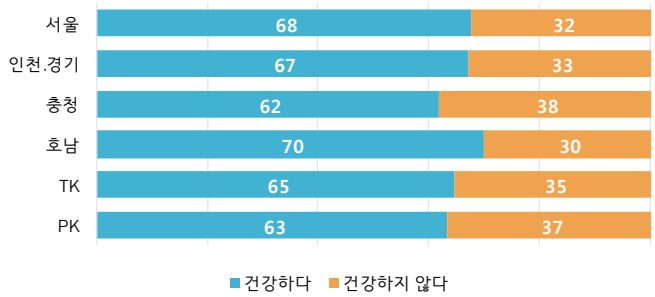
자신의 건강상태 평가 : 20대.60대남녀별,이념성향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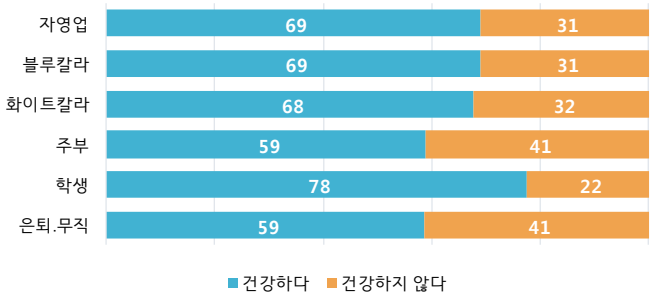
자신의 건강상태 평가 : 지역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자신의 건강상태 평가 : 직업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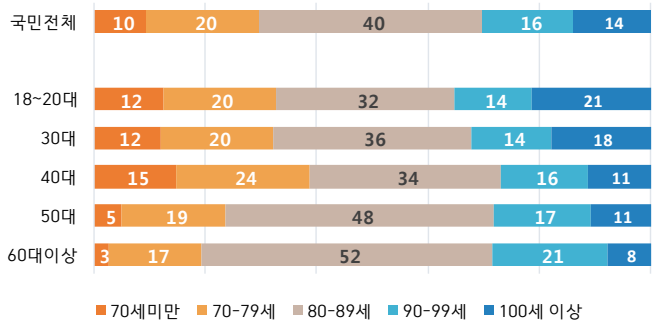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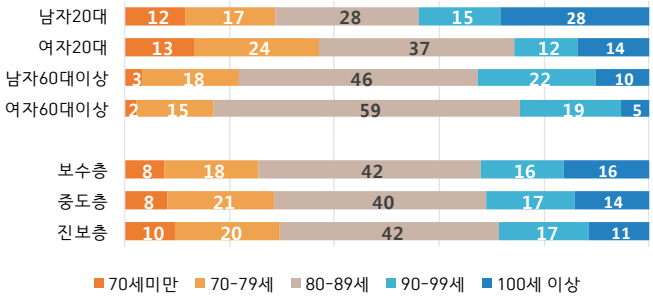
✠ 기대 수명, 80대가 40%로 가장 높아

- 우리 국민들의 기대수명은 80대가 40%로 가장 높고, 다음으로 70대(20%), 90대(16%), 100세 이상(14%), 70세 미만(10%) 순으로 조사됨
- 연령별 변수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연령대와 계층에서 8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때 일정한 '사회적 합의'가 이뤄져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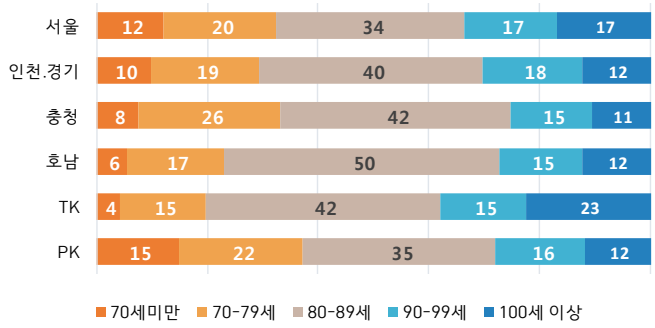
기대수명 : 국민전체,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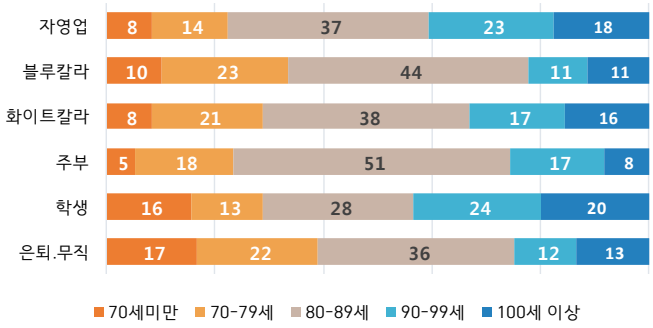
기대수명 : 20대.60대남녀별,이념성향별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기대수명 : 지역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기대수명 : 직업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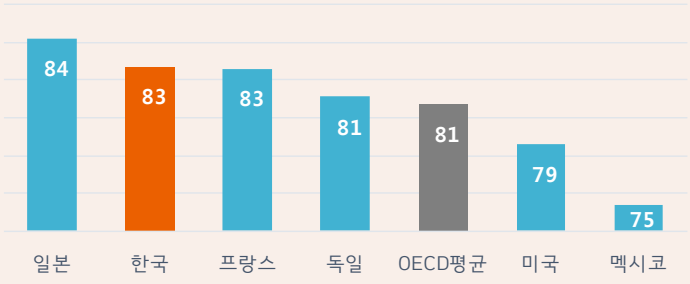
Kstat Point

☑ OECD 보건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기대 수명은 OECD 평균인 81세보다 높은 83세임(2017년 기준)

☑ 즉, 다른 나라 국민에 비해 기대수명이 높은 수준으로, 일본보다 조금 낮고 프랑스와 비슷한 수준임

: 우리 국민들은 압도적인 건강관심도가 높은 수준의 기대수명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임

OECD 주요국 기대수명 (자료:OECD,2017년,단위:세)



✠ 국민들,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건강 위한 노력은 부족한 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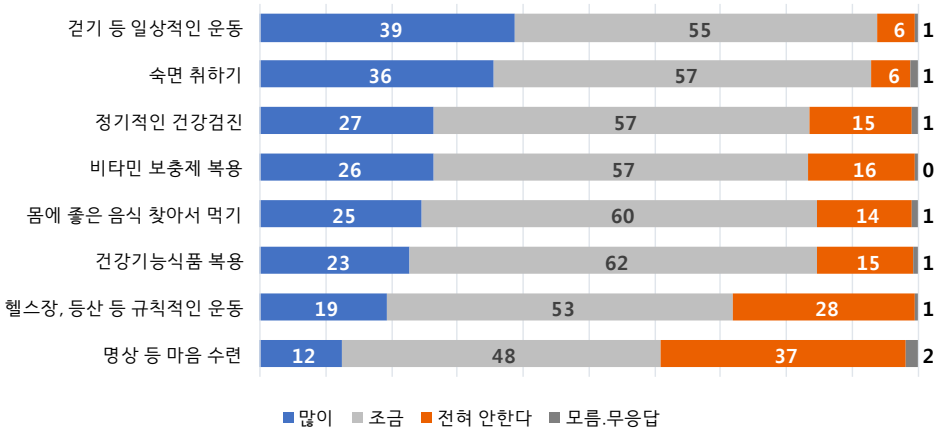
▸ 우리 국민들은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, 실제로 건강을 위한 노력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

▸ 평소 자신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를 여러 항목에 걸쳐 질문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'많이 한다'는 응답이 50%를 넘지 않음

- '조금 한다'는 응답이 대부분 항목에서 50%를 상회하고 있어 건강을 위한 실제적인 노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

▸ 국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건강 노력으로는 '걷기 등 일상적인 운동'(39%)이고, 다음으로 '숙면 취하기(36%), '정기적인 건강검진'(27%), '비타민 보충제 복용'(26%) 순으로 조사됨

건강 위한 노력 : 국민전체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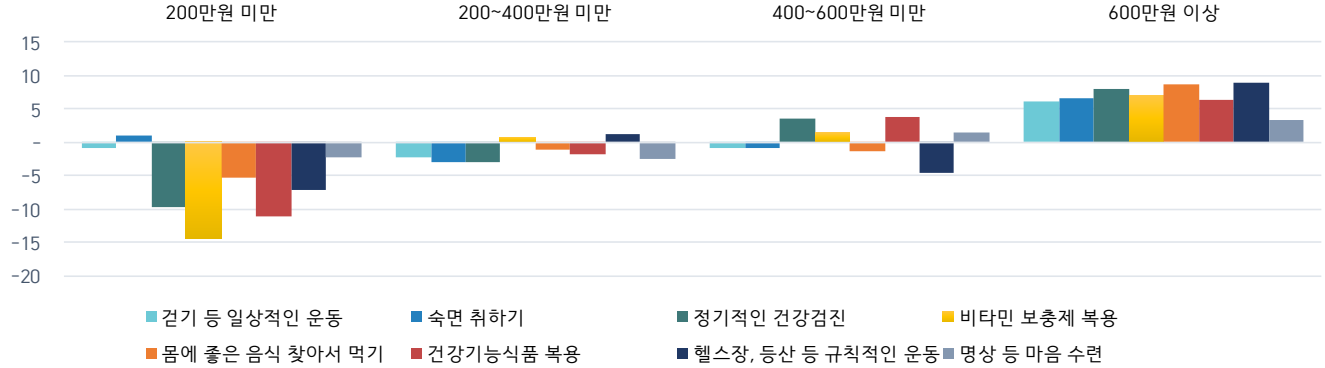


▸ 월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에 따라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가 다른 것으로 나타남

- 각 항목에 대해 '많이 한다'는 국민전체 응답과 월 가구소득별 응답의 편차를 비교한 결과 소득이 낮을수록 대부분의 항목에서 국민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
-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모든 항목에 걸쳐 국민전체 보다 높은 수준으로 '많이 한다'고 응답함

▸ 건강을 위한 노력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을 반증한 결과로 보임

건강 위한 노력(국민전체 대비 편차) : 월 가구소득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p)



✠ 건강을 위한 노력, 5060 여자 계층이 가장 적극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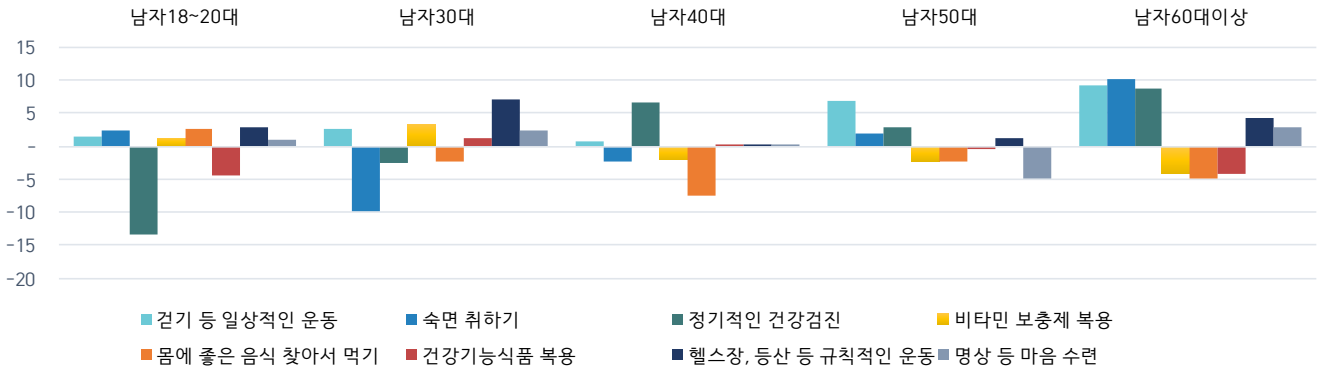
▸ 성/연령별로 건강을 위한 노력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2040 여자 계층이 소극적이고, 5060 여자 계층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남

- 각 항목에 대해 '많이 한다'는 국민전체 응답과 성/연령별 응답의 편차를 비교한 결과임
- 특히 20대 여자의 경우 국민 전체 대비 편차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매우 커, 건강을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은 계층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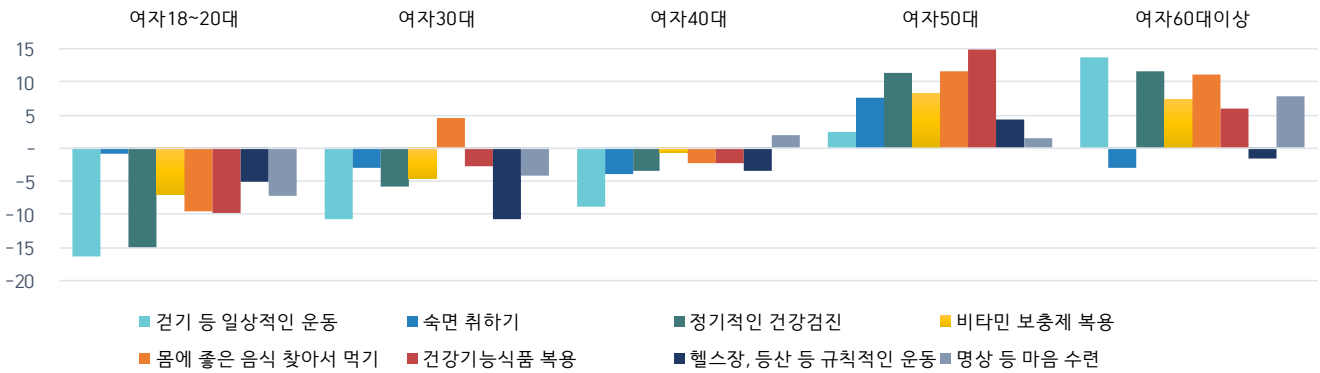
▸ 남자의 경우 60대 이상 남자가 가장 적극적이고, 나머지 연령대는 국민전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

- 60대 이상 남자도 5060 여자에 비해서는 노력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음

건강 위한 노력(국민전체 대비 편차) : 남자 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p)



건강 위한 노력(국민전체 대비 편차) : 여자 연령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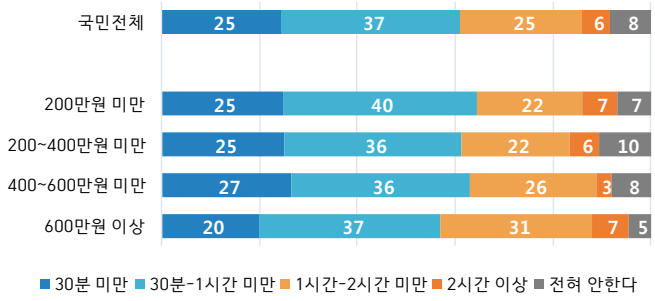
건강과 빈부 격차

건강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과 돈, 소득별 편차 존재

- 건강을 위해 하루 평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지, 그리고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소득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하루 평균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을 보면 국민 전체적으로 '30분~1시간 미만'이 37%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'30분 미만'(25%), '1시간~2시간 미만'(25%), '2시간 이상'(6%) 순으로 조사됨
- 운동효과가 큰 구간인 '1시간~2시간 미만' 시간대를 살펴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응답자 비중이 늘어남
  -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의 경우 22%인데 비해 600만원 이상 가구는 31%로 나타남
- 건강에 투자하는 비용에서는 소득별 격차가 확연히 나타남
  - 월 평균 '10만원 이상' 지출에서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11%에 그치는데 비해 600만원 이상 가구는 25%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이고 있음
- 한편, 국민 전체적으로 한달 평균 건강지출 비용은 '2만원~5만원 미만'이 31%로 가장 많고, 다음으로 '5만원~10만원 미만'(25%), '2만원 미만'(18%), '10만원 이상'(16%) 순으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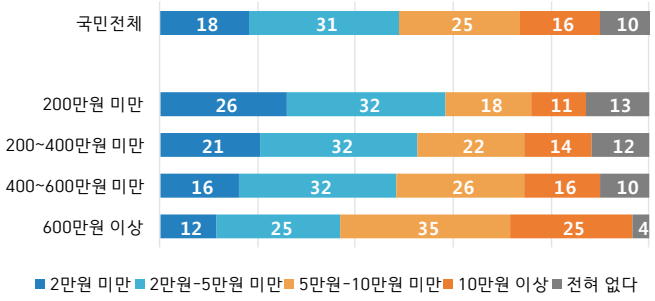
하루 평균 건강 사용시간 : 국민전체,월 가구소득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한달 평균 건강 지출비용 : 국민전체,월 가구소득별

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OECD는 건강수준에 따라 고용률과 소득의 차이가 발생하며, 이러한 요소들은 생애 기간 동안 복합적으로 작용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함

☑ 건강수준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평균적으로 20~40대에서는 25%, 60세 이상에서는 50%로 분석되고 있으며, 고용률 차이는 소득 차이로 이어지게 됨

☑ 문제는 이번 조사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저소득 계층에 비해 고소득 계층이 건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많아 건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

: 이 때문에 건강에 따른 고용률 차이는 곧 소득에 따른 고용률 차이와 같고,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게 됨

✠ 건강하지 않거나 건강 관련 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'있다' 40%

▸ "선생님께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건강하지 못하거나, 건강관련 활동을 하지 못해 우울한 적이 있습니까?" 라는 질문에 '없다'는 응답이 60%이고, '있다'는 응답은 40%로 조사됨

▸ 월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'있다'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, 소득에 따른 건강 우울감이 드러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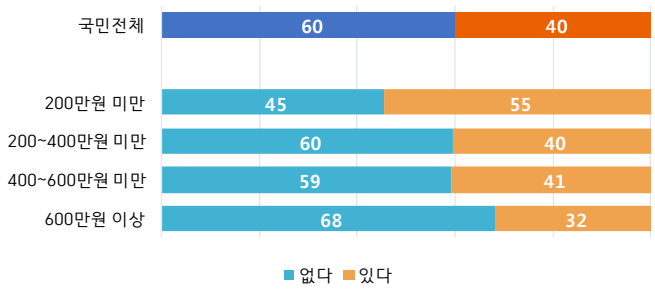
- 월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고소득 계층은 '있다'는 응답이 32%인데 비해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은 55%로 절반을 넘고 있음

▸ '있다'는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건강관련 활동을 못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'경제적 여유와 시간적 여유 둘 다 없어서'가 42%로 높은 가운데 '경제적 여유 없어서'와 '시간적 여유 없어서'가 공히 22%로 조사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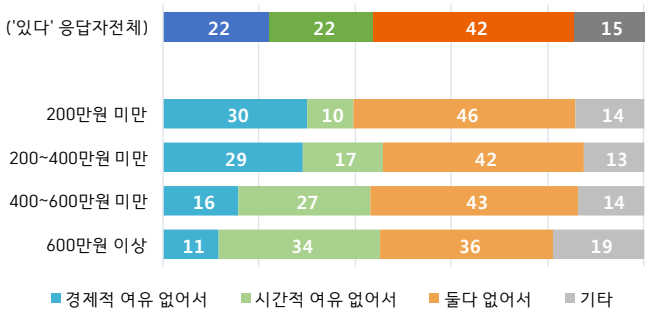
▸ 소득이 낮을수록 '경제적 여유 없어서'라는 응답 비중이 많아지고, 소득이 높을수록 '시간적 여유 없어서' 응답 비중이 많아짐

- '둘 다 없어서' 라는 비중 역시 200만원 미만 저소득 계층에서 높게 나타남

건강하지 않거나 건강관련 활동 못해 우울한 경험 : 국민전체,월 가구소득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건강관련 활동 못하는 이유 : ('있다'응답자만) 전체, 월 가구소득별 (자료:케이스탯,2020.05.10조사,단위:%)



Kstat Point

☑ 소득수준에 따른 건강의 차이, 그리고 다시 건강의 차이에 따른 고용률의 차이와 이에 따른 소득격차 심화라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저소득 계층의 건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임

☑ OECD는 건강과 소득 불평등간의 연계를 끊고 노동능력 향상을 위한 균등한 기회제공, 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, 의료서비스의 균등한 접근성 등을 권고하고 있음

조 사 개 요

조 사 기 간	2020년 5월 7일(목) ~ 5월 10일(일)
조 사 방 법	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
조 사 기 관	케이스탯리서치
표 본 추 출	지역별, 성별,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
표 본 틀	케이스탯리서치 K-패널
유 효 표 본	총 1,050명
표 본 오 차	95%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±3.02%p
가중치 부여방식	지역별, 성별, 연령별 셀 가중 부여 (2020년 4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)

케이스탯은 조사·통계·컨설팅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,
매월 2회 "Kstat Report" 를 발간하고 있습니다.

- Kstat Report 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(Buzz)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사회, 경제, 생활,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.
- Kstat Report 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.
- Kstat Report 는 매월 2, 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.
- Kstat Report 정기 구독을 원하시면, 문의 메일(report@kstat.co.kr)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.

Kstat Report 07호(2020.06.11.)는 "국제 관계"를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.